



황인홍 무주군수,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황인홍 무주군수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최원철 공주시장의 지목을 받은 황 군수는 지난 28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 피켓을 들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려 나가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황인홍 군수는 "환경보호는 개인 컵 사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공감과 확산과 실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오늘의 챌린지도 공공기관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모두의 참여를 부르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황인홍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최훈식 장수군수, 김충섭 김천시장을 지목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개 제공기관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궁군 새만금정책포럼위원장, 자랑스러운 남성상

전북도는 남궁군 새만금정책포럼위원장이 지난 27일 남성동청회관에서 열린 익산 남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회장 강신섭)에서 '자랑스러운 남성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궁군 위원장은 새만금정책포럼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2012년 초창기부터 위원장을 역임했고, 새만금 정책개발에 큰 공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총동창회는 "남궁 동문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남성인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자랑스러운 남성인으로 선정해 5만여 동문의 이름으로 이 상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궁군 위원장은(69, 22회, 서울과기대 명예석좌교수)는 1972년 남성고 졸업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행정책대학원 수학,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박사를 취득했다. 또 경제기획원 근무(제19회 행정고시 합격), 경상국립대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연구와 저술활동을 통해 미국행정대학원연합회 우수박사논문상과 한국행정학회 저술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소방서, 춘향제 소방안전 체험부스 호응 커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99회 춘향제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광한루 앞 행사장에서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부스에서는 다양한 소방 안전체험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 체험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연기소화기 체험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소방차 품블러 만들기 △방화복 포토존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전거, PM 안전하게 타세요”

서거석 교육감, 만성중·만성초 등곳길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8일 전주만성중학교와 만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안전모를 고쳐 써워주는 등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증대로 스피드 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전거는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하며 핸드폰과 이어폰 사용은 자제할 것, 16세 미만은 원동기면허 미보유자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담은 안전수칙 홍보자료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학교별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교통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향후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 2,000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학생들의 계기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 자전거 안전모 지급처럼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NO EXIT 캠페인 참여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이 지난 28일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병춘 총장은 마약 근절을 바라는 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박병춘 총장은 "마약 근절 캠페인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전주교대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다음 주자로 TBN 교통방송 박경민 사장을 지명했다. /김재훈 기자

춘향선발대회 수상자 6명...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 수상자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제93회 춘향선발대회 춘향진 김주희씨(22, 전주, 목원대학교 국악과 재학)를 비롯, 춘향선발대회 수상자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원시는 매년 선발되는 춘향 수상자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춘향 수상자들은 앞으로 3년간 남원시 공식 홍보 모델로서 국내외 관광·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 참가해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남원과 춘향문화를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씨는 이날 위촉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마임을 상징하는 춘향 진에 선발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악을 전공하는 재원으로서 앞으로 국악의 도시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남원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좋겠고 우리 지역 대표 민족문화인 춘향의 얼을 항상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남원시 얼굴이자 문화관광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남원 원월장에서 치러진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김주희씨가 춘향진으로 뽑혀 대한민국 최고 미인으로 등극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재연 농협 정읍시지부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농협 정읍시지부 이재연 지부장은 28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마련한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올 연말까지 이어가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날 이 지부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축구 주민서명 챌린지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8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SNS에 시태기로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을 게시했다.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인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를 지목하고 SNS 챌린지가 지속되길 당부했다. 고창 주민들은 원전 주변 지역을 거주하면서도 원전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제도의 문제로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고창군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구성하고 활동 중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 지방세법 내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 범위를 원전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진장축협, 임직원 일동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재근) 임직원들은 최근 장수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4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에는 무진장축협 송재근 조합장, 전태술 상임이사, 강동원 본부장, 임재운 장수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무진장 축협은 임직원들이 무주, 진안, 장수에 각각 340만 원씩 총 102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송재근 무진장축협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장수군에 장수지점과 장계지점, 장수한우목장 사업장을 둔 지역축협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진장 축협에서 생산한 장수군 담배품 한우사골곰탕 및 사골세탁도 선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곽관호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 저소득 어르신 팔순잔치 개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안군협의회)는 최근 올해 팔순을 맞이한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40명을 초대해 팔순잔치를 열었다. 올해 10회를 맞은 팔순잔치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전운태 도의원, 진안군협의회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고 헌주를 하며 장수를 기원했다. 식전행사로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모관대 촬영을 진행했으며, 예술단의 공연으로 위안잔치를 벌이는 한편, 어르신들의 노래잔치로 흥겨움을 더했다. 이날 팔순잔치에 참석한 김모 어르신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품이 아픈 데가 많은데,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는 기분이 들만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범석 농협 무주군지부장, 마약 NO EXIT 캠페인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지부장 박범석)는 지난 28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박범석 지부장은 김승기 무주교육지원청장의 지목에 따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재향군인회, 국민회합 호남·영남 친선교류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전진석)는 국민회합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호남·영남 친선교류를 실시했다. 김제시를 방문한 인동시 향군회원을 맞이하여 격의없는 소통 나눔으로 시작된 이번 친선교류에서는 김제시와 인동시 향군회원 110여명이 함께하며 호남·영남 화합과 안보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양 지역의 특산품을 교환하고 새만금 홍보판과 해님 이엽터, 망해사 일대 등 탐방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석 김제시 재향군인회장은 "더욱 든든한 지역 안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호남·영남 교류를 통해 지역 간 벽을 허물고 상생과 통합을 위한 재향군인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시와 인동시 재향군인회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우의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양 도시 간 교차 방문을 통해 국민 회합의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